

司書教師의 生活과 意見

金 容 瀨

一. 圖書館이 되기까지

도리켜 보건대 檀紀4292年 초여름의 일이다. 偶然히 桌上에 놓인 公文을 눈익히 보니 司書教師 講習會 開催에 關한 內容이었다. 그瞬間 나는 문득 決心하고 學校當局에 보내줄것을 要請하여 所定의 手續과 過程을 履修하고보니 이제는 文化的 殿堂에서 主人公으로서 實際的인 奉仕에 臨할수 있게 되었구나 하고 限없는 喜悅과 希望속에 暫時 自慰의 陶醉에 깊숙히 파묻히기도 하였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 이瞬間 이때가 바로 나로하여금 無限하고 複雜多岐한 圖書館의 業務와 더불어 每日를 生活하도록 마련한 動機가 되었으리라고 믿는다.

當時의 이곳 圖書館은 教育者들을 위한 圖書과 學生을 위한 圖書가 區別되어 高等教育에 臨하고 있는 學生들 에게는 아무런 興味와 欲求를 期待할수없는 藏書며 施設 이었던 것이다.

여기에 着眼한 나는 곧 敎職員과 學生들을 中心으로하여 一人一冊主義를 내걸고 圖書蒐集運動을 計劃하고 實踐에 옮겨본 結果 貧困한 生活의 條件을 免할수 없는 現實 속에서 그다지 容易한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男兒로서의 氣概와 意志, 指導者로서의 模範과 迫力등 이것만이 오로지 이어러운 運動의 結實을 맺일수 있

는 重大한 原動力임을 銘心하고, 어떠한 理論, 어떠한 事情등도 아랑곳없이 물리치고 拍車에 拍車를 加하여 드디어 1000 餘卷 이라는 圖書를 確保할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더욱이 이와같은 堅固한 意志와 信念의 實現은 나의 生活하는곳이 每日같이 모든 사람 앞에 模範을 보여야만될 環境이었기 때문에 그러했는지도 모른다.

熱心히 배워서 알자! 그然後에 내가 意圖하였든 所信대로 實行해 보자의 初志는 마침내 오늘의 이와같은 環境을 構成할수 있었고 많은 人士와 學生들에게 關心의 集中이 될수 있는 對象으로서의 圖書館이 되고야 말았던 것이다.

于先 "韓國에서의 Renaissance는 圖書館의 開拓부터"라는 命題에 着眼한 나는 事業에 對한 構想과 計劃을 樹立하고 여러곳으로부터의 協助가 이事業을 完遂할수있는 關鍵임을 銘心하고 몇日間을 걸쳐 圖書館學과 圖書館業務에 對한 一般의인 概要와 自信의 事業案을 프린트하기 始作하였다. 即 圖書館의 發達史, 圖書館의 領域, 圖書館開設을 위한 豫算과 施設및 備品, 圖書館 運營委員會 構成 및 運營 規則案, 學校教育에 있어서의 圖書館의 位置, 韓國教育의 當面課題, 우리 學校에서 解決되어야할 現況 몇가지등 여러가지의 問題를 提示하여 問題를 惹起 시켰다. 이

問題가 되는 內容의 여러가지 프린트는 敎職員, 地域社會人士, 師範會任員, 學級別, 圖書委員, 揭示板, Peabody 敎育使節團, Mr. Burgess 등에 가지 配布하여 輿論의 喚起와 建設的인 批判의 機會가 되고야 말았던 것이다.

單純히 冊만 있고 貸出 되는데 局限되는 곳이 圖書館인 줄로만 알고 있었던 地域社會에서 너무나 飛躍的 이라고 할 수 있으리 만큼 非常한 關心을 기울이게 하였으며, 또한 啓蒙의 始初가 되었다고 보겠다. 그러나, 어느社會, 어떠한 環境에서도 일하는 初創期에는 그事業을 圓滿히 推進함에 있어 各地各색의 問題가 있게 되는 것이다. 卽 讚意와 協助 또는 同情, 이라기 보다 오히려 猜忌와 嫉妬, 不必要한 話題로 둘러 쌓이는 것 만은 事實이며, 더구나, 우리들의 現實이 더욱 그러하다. 그 한例가 “圖書館 프린트 때문에 用紙가 모두 없어진다니, 學校運營에 있어 圖書館事業만이 全部이며 韓國現實에 비추어 時期尙早라다니, 學校의 財政的인 規模에 비추어 보아 그와같이 多額을 一方的인 部署에만 支出함은 不可 하다니, 오늘날의 社會現實로 보아 開架制는 圖書를 紛失할 合法的인 制度이며, 學生들의 品性培養에 나쁜 영향을 미쳐주는 動機가 되며, 溫床地가 된다니, 其他 形容 할 수 없는 여러 理論과 非難이 있었으나” 그럴 때마다, 나의 하고자 하는 意慾은 더욱 鼓吹되며, 信念이 強해지는 것 만은 事實이었든 것이다. 既往에 辱과 非難을 받을바에야 如何한 難關이 到來한다 할지라도 建設해 놓고 따져보자고 自問自答해 보기도 한두번이 아니 었었다.

나의 平生을 通하여 걸어 가려고 決心했는 敎育慈善事業家로서의 抱負가 만 社

會에서 實現 할수 없었다 한지라도 學校에서 特別 師範敎育機關에서 敎育學이라는 課目을 通하여 知識과 理論을 곧 나의 人格과 實踐으로 正確하고도 完全하게 보여준 結果는 今番의 圖書館業務가 아니었든가 생각한다.

只今도 適當 五個敎科에 20餘 時間의 授業과 圖書館의 業務를 같이 맡고 있으나, 그렇다고 나에게 特別히 別途의 手當이 支給되는 것도 아니요, 나를 도와줄 職員이 있는 것도 아니요, 當局이 그 手當을 알아 주는 것도 아니요, 다만 외로히 東奔西走하며 開拓해 가고 있다. 이러한 生活로 因하여 身體的, 時間的인 疲勞와 制限은 받으면서 아무런 後悔를 하지 않는다. 萬一에 不足된 느낌이 있었다면 하루 速히 學生들에게 有益한 藏書를 確保하여 學校敎育에 있어서의 Center로서 發展이 되어 모든 生活은 圖書館과 因緣을 맺지 않고는 不便을 느낀다고 不平하는 學生들이 많이 나와 주었으면 하는點일 뿐이다.

이제 圖書館을 開拓 하려는 여러 同志들을 위하여 多少이 도움이 된다면 하는 心情에서 여기에 그동안의 過程을 暫間 살펴 보는 것도 앞일을 위하여 決코 無意味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1. 豫算確保와 用途의 區別

* 이곳은 다른 敎育機關과 다른點을 먼저 알려 둔다. 우리나라 國民敎育을 擔當할 指導者 養成機關으로서 美國의 敎育經濟 援助機關인 Peabody 敎育使節團이 駐在하고 있어 Dr. Hedges氏가 直接, 間接으로 많이 도와주고 있다. 또한 國民學校, 併設中學校, 併設高等學校, 師範學校등 네 가지의 特殊한 目標에 依하여 設置된 學校가 한울안에 存置하고 있고 國立敎育機關으로서 우리나라 文教政策이 直接 反映

되고 있는 位置로 보아 언제나 文教當局과의 關係를 輕視할수 없는 立地的인 條件下에 있는 것이다.

더구나 來年 부터 師範大學이 新設되면 五個學校의 機能을 갖게 된다.

어느 學校의 事情도 類似 하려니와 只今 우리가 當面하고 있는 모든 現實이 바로 教育的인 課題이며 研究를 必要로 하는 問題라고 보겠다.

이와같이 많은 宿題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로서 그지 宿題만을 받아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先輩로서 또한 教育者로서 그중의 한가지라도 問題를 解決해 나아가기가 當然한 義務이며, 責任인것으로 안다. 그렇다면, 무엇 무엇 하고 理論이나 原則論 만을 論議 하는데 끝일것이 아니라 一步前進하려는 意志와 勇氣가 必要한 것이 아닐가? 必要한 것뿐만이 아니라 後進들의 要求이며 時代的, 思潮的인 產物로서 받아 드려야만 할 至極히 當然하고도 重大한 問題라고 하겠다.

回顧 하건데 檀紀4292年度의 年間 圖書購入費 名目下에 不過 2萬圓이 計上되어 있는 그때부터 나는 아무리 濔濔한 知識과 技術과 人格이 있고 事業에 對한 計劃이 잘 되어 있다한들, 일을 일답게 實行해 나아가려면 이러한 모든 힘을 最大限發揮해 낼수 있는 豫算上의 背景이 없이는 到底히 不可能하다고 斷定하고 곧 當局者에게 A案, B案, C案의 圖書館事業計劃案과 建議書를 長文으로 作成하여 長期間 當局者의 研究問題로 提示 하였든바 約一週日이 經過한 後에 豫算案의 約2分之1에 該當되는 50萬圓을 얻을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Peabody Office의 Dr. Hedges氏를 訪問하고 이 內容에 關한 具體的인 意見을 提示 하였든바, 자기도

그와같은 誠意에 積極協助하여 이 學校에서 그 어느 事業 보다도 優先의 이고도 尨대한 豫算을 支出해 주도록 Peabody團長에게 報告하겠다는 確約을 받은後 約10餘日後에 延世大圖書館學科의 教授이며, Peabody教育使館團의 圖書館學 專問家인 Mr. Burgess氏와 그곳에서 勤務하고 있는 明在暉氏를 招請케 하고 事業案에 對한 眞摯한 討議와 分析이 온終日 있은後에 마침내 오늘의 榮光을 가져 올수있는 歷史的인 契機를 마련 할수 있었던 것이다.

이 事業에 있어, 計劃과 監督및 管理는 自身이 하고, 適期에 支出될수 있는 經濟的인 支援만이 Dr. Hedges氏가 맡고, 當局者는 兩方의 意見과 事業進行中의 調整만을 擔當케 하여 드디어 設計家아닌 設計家, 學者 아닌 學者, 書籍商 아닌 書籍商, 美術家 아닌 美術家, 庶務 아닌 庶務 등의 役割을 다하면서 不徹晝夜로 約1個餘月間 繼續하고 보니, 家庭의 살림사리며, 子女의 教育問題이며, 甚之於 夫婦間의 愛情問題하며, 親舊之間의 友情問題 등 이루 表現할수 없으리 만큼 온갖것이 모든 窮地에 빠지고야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生涯史에 하나의 記念塔이 될수 있고, 個人만이 아니라, 이學校, 이 社會, 이 民族, 이 國家의 힘의 一部가 되며, 나아가서 우리들의 財産이 되고, 文化의 遺産이 되어 子子孫孫에게 배움에 踴躍된 現實속에 한낱 燈불이 될수 있다고 생각 하였을때 그러한 手苦며, 環境이며, 身體上의 問題들은 그다지 머리에 떠 오르지도 않았었다. 只今도 가끔 생각해 보기도 하지만 한쪽으로는 우습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며, 나날을 쓸쓸하고 외로운 속에서 每日을 보내고 있다.

오늘과 같이 混亂하고 어수선한 生活속

에서 그래도 未來를 꿈꾸고, 來日을 計劃하면서, 어느 學者, 어느 學說, 어느 理論을 探究하려는 自身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다지 不運한 位置는 아니라고 스스로를 慰安해 보기도 한다. 아무리 손쉬운 그들의 援助라 할지라도 “울지 않는 애기 에겐 젖을 주지 않는다.”의 俗談과도 같이 그 時期를 잃거나, 움직이지 않고는 아무리 훌륭한 事業이며 計劃일 지라도 나의 所望대로 支出케 한다함은 想像할수도 없는 問題이다.

이때의 經驗으로 보아, 모든 社會環境이 우리들이 바라다 보는 單純한 社會이며 人間이 아닐진대 業者는 業者대로 自身들의 手段과 方法을 다하여, 現在의 눈만으로 個人使利主義와 利己主義의 立場을 固守하고 오늘날의 問題요, 오늘날은 오히려 나를 위하여라는 式的 態度를 그들 앞에서 示範하고 있으니 말이다. 眞實로 느껴질수 있는 民族的인 悲哀며, 經濟的인 悲哀는 平生을 避하여 있을수가 없는 原因이 되었고, 앞으로의 일에 對하여 새로운 敎訓을 받을수가 있었다고 보겠다. 그들의 問題를 말하기前에 내 自身 부터의 問題라고 보았을때, 그들의 思考方式이나 우리들에게 對하는 모든 條件은 決코 無理 아닌 當然한 일로 본다. 그것은 美合衆國의 約 1億8千萬名이라는 市民들의 “피와땀과 눈물”로서의 援助일진대 自身들의 名譽와 自尊心을 위해서도 보다 徹底한 監督과 價値를 나타내자는 心情에서 나오는 結果인 것으로 본다.

左右間 그들은 既往에 그렇게 생각하고 나온다 할지라도 나는 내 나름으로서의 畧칙로 完全히 調理하여 보겠다는 心算으로, 政治的, 理論的, 社交的, 人間的, 教育的인 온갖 方法을 다하여 結局엔 約

350萬圓을 支出케 하여 現在로서는 그다지 不便없을 程度의 施設이며, 備品이며, 藏書등을 具備해 놓을수가 있었던 것이다. 甚之於 BookCard, Book-Pocket, Date-Due 등 消耗品인 紙類까지 그들의 돈으로 確保해 놓았으면 多少 짐작 할수 있을 것이다. 後에 들은 이야기 이기는 하나, 經濟援助에 對한 그들의 全體會議席上에서 援助方針에 相反된 消耗品인 紙類까지 援助해 준데 對하여 長時間의 甲論乙駁戰이 展開되었었다고 한다. 이와같은 過程을 거처온 그때를 생각해 보면 確實히 檀紀4292年度는 現況把握과 圖書館教育을 適한 修業期로 볼수 있고 檀紀4293年度는 이 事業이 本軌道에서 推進되었다고 보았을때 檀紀4294年度는 技術向上과 學生生活에 直接 反映 시켜야할 年度로 規定하여 보고 있다.

그러면 學校當局으로부터 얻은 豫算은 어떻게 執行되어 왔던가? 를 살펴 보겠다. 豫算額 50萬圓中 新聞購讀料 10餘種에 約 7萬圓, 雜誌類 約 15萬圓, 經常費 約 15萬圓, 參考圖書購入費(辭典類) 約 13萬圓, 程度로 充當하여 왔다.

一般圖書購入은 Peabody 豫算中에서 約 100餘萬圓으로 900餘卷의 圖書를 確保하였던 것이다.

現年度의 豫算은 學校로 부터 約 70餘萬圓을 얻게되어 現在의 構想으로는 新聞雜誌購讀料 約 20萬圓, 新刊圖書購入費 約 30萬圓, 經常費 約 5萬圓, (讀書週間行事費, 圖書委員學生生活活動費, 圖書修理及其他 備品費包含) 參考圖書購入費 約 10萬圓(辭典, 年鑑類), 其他會費 約 5萬圓(圖協會費, 座談會費, 圖書委員 學生指導費)등에 充當코자 한다.

今年度 Peabody Center의 態度는 不分

明하나, “취 노리는 고양이”格으로 現在 여러모로 그에 對備하여 언제든지 適期에 支出될수 있도록 新刊圖書등의 目錄 List 를 作成해 놓고 있다. 아마 今年에도 다시금 實力을 行使해 보려고 굳게 決心하고 있다.

2. 圖書館 機能과 圖書館人

나는 이主題를 내용은 動機부터 말하고자 한다. 大部分의 圖書館의 位置가 그리 하듯이 學校教育과 學生指導, 學問과 人間關係로 보아 學校教育은 마땅히 學生들의 正常的인 指導를 위하여, 學問은 人間을 위하여, 存在하며 그에 비로서 眞義로서의 教育의 價値가 있는 것으로 본다. 萬一에 學問에 對한 素養이 不足하다거나 知識과 理論의 缺陷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같이 指向할마 首肯할마는 人間의 問題일줄로 안다.

오늘날 Europe의 物質文明이나, 科學文明이 우리들의 生活를 複雜에서 簡便으로 이끄러 놓았기는 하였으나, 渴望하는 眞, 善, 美의 理想이 그 얼마나 實効를 견우었는가에 對해서는 冷靜히 批判해 볼 必要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이러한 問題가 내自身만이 생각하는바는 아니겠으나, 學校教育의 Center라고 自處하는 學校 圖書館에 있어서는 반드시 念頭에 두고 바라다 보아야만할 必須的인 課題라고 까지 말하고 싶다. 勿論 이理論에 對하여 或者는 後進國의 百姓 이니까, 後進國의 學生 이니까, 後進國의 學校 이니까등의 假說도 나올수 있으리라고 믿으며, 그러니까 學校가 있고, 教育이 있고, 文化機關으로서의 圖書館이 있지 않느냐고 反問이 있으리라고도 본다. 이 理論이나, 저 理論이나 首肯될수 있으나, 根本的이고도 具體的이면서 緊急을 要하는 問

題부터 論해 보고자 함이 나의 意圖하는 焦點 이라고 하겠다.

첫째: 圖書館은 紳士와 淑女로서의 品性을 기르는 道場이다.

둘째: 現代式 圖書館은 圖書, 施設, 讀者의 三要素를 갖추고 最大限의 Service를 할수 있도록 迅速하고도 容易하고 보다 새로운 知識의 供給이 되어야만 한다.

셋째: 有能한 技術을 가진 Librarian으로서 讀者를 위하여 圖書館에 備置한 資料를 充分히 利用할수 있는 方向으로 Guide 하여야 한다.

넷째: 知識의 寶庫로서 文化의 最尖端에서 그들의 生活에 直接 間接으로 利益이 될수있는 모든 文化財를 保有하고 있어야만 된다.

다섯째: 學校教育에 있어 Curriculum을 돕고, Guidance의 根源이 되고 學習指導의 技術을 向上시켜주고 그들의 生活에 必要한 經驗을 豊富히하여 준다.

以上과 같은 學問的 理論的인면 만을 展開하여 나아가는 規範속에서 보다 一步 前進하여야할 우리들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볼적도 하다.

모든 學問이나 藝術도 歷史的, 時代的 社會的인 事情에 따라 解釋하는 定義며 態度가 달라지고 있고 또한 달라져야만할 것으로 본다.

本來의 使命이 Service이니 이와같은 論理는 아무런 뜻이 없다고 보겠으나, 그렇다고 그대로 두고야만 만다는式의 論理도 다시 생각해볼 問題이기도 하다.

單純히 學校 圖書館에서만이 아니라 公共 圖書館이나, 어떠한 部類에 屬한 圖書館이라 할지라도 人間으로서의 共遊된 理想이 眞, 善, 美 일진데, 이를 向하여보다 能動的이며, 創造的이면서 讀者들의

앞에 설 수 있는 모든 條件을 갖추은 勿論 模範을 보일 수 있는 契機와 實踐이 있어야만 하겠다.

人間의 良識이 知에서 始作하여 知에 끝이는 이러한 論理는 우리들의 現實로 보아 좀 消極的, 受動的인 態度가 아닌가 생각 한다.

아무리 知에서 出發하여 知를 向한다 할지라도 知를 通한 하나의 새로운 人間이라는 點에 까지 到達 됨으로써 Service의 뜻이 있을 것이며, 文化的 殿堂으로서의 存在價値가 評價되는 것이라고 보겠다.

그러므로 圖書館의 機能中에서도 가장 緊要한 問題는 나의 경우 사람에게 有益되고, 實社會에 有益한 人間을 한 사람 한 사람 養成해 내는 道場의 主人公으로서의 Librarian 이어야만 하며, 그러한 位置에서 生活할 수 있도록 努力하고 研究하고 開拓해 나아가야만 될 줄로 믿는다.

한 예를 들어 본다면 學校教育에서 圖書館教育을 위한 指導資料의 蒐集과 研究의 問題, 圖書館 利用을 通해서의 學生들의 指導資料를 學校當局에 提示하여 Guidance에 反映시키는 問題, 圖書館에 從事하는 職員의 法律上, 身分上의 厚生問題등 보다 積極적이고도 活潑한 外向的인 事業의 展開가 아니고는 到底한 圖書館으로서의 口實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많은 藏書와 施設과 環境이 마련되고, 考古學的인 價値가 있는 圖書를 備置해 놓았다 한들 어떤 論理에 비해본다 할지라도 結局엔 博物館의 展示의 場所와 百貨店에 陳列된 商品에 不過할 것이다. 이點 우리들은 特別히 留意하고 考慮되어야 하며, 이러한 問題의 要素가

除去되었을때에 비로소 眞正한 奉仕의 價値가 있게되며, 圖書館으로서의 口實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본다.

이 社會이 現實의 傳統的인 習性에 對하여 考察하여 볼지라도 모든일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段階인 實行過程에서 너무나도 理論的인面에 置重하여 왔었던 事實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圖書館職을 擔當하고 있는 우리들 自身의 權益을 위하여 우리나라 民族性에 對한 史的考察으로써 이 글월의 맺음에 資하고자 한다.

一般的으로 韓國人의 Personality는 內向的이고, 情緒的으로 不安定하여 오랜冬眠속에서 沈默을 지키는 傾向이 있으나 때로는 猛獸와 같은面도 없지 않다. 그러나, 中國民族이 理性的이요 實踐的인테 比하여 理論的이요 消極的인點이 特徵이라고 하겠다.

어떠한 苦難, 어떠한 環境일지라도 個人自身이 이것을 突破해 보려는 積極性이 比較的의 稀薄하다고 보았을때, 이와같은 傳統的인 觀念과 慣習은 長久하게 支配하여 왔던 儒敎的인 事大主義에 基因한것으로 볼수 있다. 이 歷史的이고 傳統的인 遺産으로서의 代價인지는 알수없으나 “奉仕, 奉仕”하니 牛馬以上으로 畜을 苦役을 다 하고도 (淸掃夫, 守衛, 事務員, 接受係, 修理工) 當局이나, 學生이나 敎職員, 小使, 給仕에 이르기까지 理解와 協助 및 愛護는 못할지라도 無條件 世代的 奴隸인양, 때로는 異邦人 아닌 異邦人과 같은 印象을 갖거나, 戰爭의 副産物로 登場하는 捕虜등으로 밖에 그 價値를 規定하고 있지 않으니, 참으로 寒心 스텝기限이 없다.

오늘의 錯雜과 無秩序 속에서 先進各國의 合理的 이고도 理想的인 圖書館의 奉仕云云이 果然 正常的인 基準에서 評價했을때 妥當할 것인가?의 問題부터 다시 금 批判하고 反省하여 是正과 改善의 方向으로 進出하여야만 된다고 보겠다. 이때에 비로소 우리들이 推進하려는 本來의 圖書館事業이 可能할 것이며, 參與 機能을 갖출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勿論 그 社會, 그 構成員의 質的인 問題, 教養의 問題등도 있다고 말할수가 있겠고, 이러한 現實이니 참모 建設에 나아가야만 하지 않겠는가의 反問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도 하나의 人間인 限 Ene gy의 問題나, 奉仕의 問題에도 限度가 있으리라고 본다. 너무나 俗된 表現인지는 모르나, “空氣와 물” 만으로서 우리들의 生命體가 維持되는것도 아니며, 鬪牛士의 役割을 하면서 까지 奉仕를 하여야만 되는 것일까? 自身의 見解로부터 奉仕라하면 理解와 協助와 愛護가 더부러 있음으로써 비로소 眞正한 奉仕의 意義와 價値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根本的이고도 時急한 問題가 民族心理學的인 問題부터 取扱하여야만 될 것으로 본다. 왜그러나 하면, 우리들의 生活周邊을 概觀하였을때, 너무나도 利己主義的이며, 個人便利主義的이면서 어름 보다도 살쥔한 排他主義와 現實主義에 對하여 週期的인 心的 改造와 아울러 物的 改造가 따라오지 않는 限 所期의 目的을 達成함이 至極히 어려운 것으로 본다. 여기에 臨할수 있는 堅固한 意志와 信念의 所有者인 圖書館人으로서의 圖書館事業을 推進할수 있는 位置에 놓아야만 되겠다고 본다.

아무리 天職으로만 알고 後悔없이 生活

해 간다고 한들 日益 進展해 가는 社會의 變遷과 人智의 發達에 適應하는 奉仕로서의 圖書館의 機能을 具備해 갈수 있는 問題만이 圖書館의 正常化와 所期의 成果를 얻을수 있는 要因이 되리라고 믿는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韓國에 있어서의 圖書館事業은 民族思想의 問題와 民族心理의 問題에 執着하고 이를 改造, 改善시켜 그 基礎위에서만 圖書館으로서의 正當한 存在價値가 있을 것이며, 國民이 希望하는 對象이 될수 있을 것이다. 이 問題야말로 個人, 社會, 學校, 民族, 國民등의 問題이며, 現實의 問題요 理想的 問題라고 가지 말할수 있다.

이 問題야말로 圖書館機能에 있어서의 根本的 이고도 原則的인 問題라고 말할수 있겠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든 面이 그러하려니와 人間集團으로서의 人間生活의 問題가 繼續的으로 公平하고 正當하게 營爲해 갈수 있도록 至誠과 創意로써 베풀어졌을때 비로소 奉仕답고 奉仕로서의 意義와 價値가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들 自身이 여기에서 出發하려는 初志는 반드시 理想人, 理想社會, 理想國家 등의 體制와 秩序를 確立할수 있는 動機와 原因이 될수 있으리라고 본다.

僥倖으로서의 思想과 心理는 온갖 學問과 知識, 技術과 經驗을 減少시키는 根本的이고도 重大한 病的인 症勢가 된다고 함은 決코 誇張된 表現은 아닐 것이다.

換言하자면 人間에의 肥料, 社會에의 肥料, 民族과 國家에의 肥料가 될수 있는 圖書館으로서의 文化財가 供給되고 奉仕가 提供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筆者 大田師範學校 司書教師)